

세상을 도울 의미 있는 변화를 꿈꾸다



장민수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을 공부하며 세계 보건 현장으로 나갈 꿈을 키우고 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선생님의 뜻밖의 질문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장민수 학생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계속되던 그때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이 큰 감명을 주었고, 장민수 학생은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를 정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민수 학생은 지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으로 학업에 열중하며 그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처음에는 ‘국경없는 의사회’처럼 국제 NGO에서 의료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의료구호활동에 헌신하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던 중 의료구호도 중요하지만 국제보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사람과 사회로 향하다

일찍부터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한 장민수 학생은 사람과 사회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이끌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직접 해화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제의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했어요. 그리고 ‘공부해서 남 주는 나눔이웃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을 매주 만나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식 사업으로 정착해서 나중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후회도 많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욕심에 너무 공부만 시킨거 같아서요. 편안한 형 동생처럼 지냈



‘공부해서 남 주는 나눔이웃 프로그램’ 활동 중인 장민수 학생(왼쪽).

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족하나마 교육봉사로 시작된 마음은 그대로 전공으로도 이어졌다. 팀을 꾸려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하던 장민수 학생은 강서구 지역의 건강문제를 분석하며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문사업을 고안했다. “직접 강서구 주민과 보건소 직원, 시민단체 등을 인터뷰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방문사업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 보건소에도 전달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보건학이 능동적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장민수 학생의 보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깊어졌다. 국제보건동아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전문가들의 강연을 찾아갔다. 관련 학생 공모전에도 참가하고, 국제보건정책 연구실 인턴으로 자원하며 국제보건에 대해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쌓았다.

아산장학금으로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보건대학원에 진학하고 1년, 장민수 학생은 ‘넓은 바다로 나온 것 같은 설렘이 가득한 일 년이었다’고 말한다. 올해부터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생활비 걱정을 덜고 마음껏 공부

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수업을 통해 국제보건 정치경제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관점을 접하며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장민수 학생은 대학원에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힘을 생각하게 된 것을 꼽는다.

“그동안 좋은 정책을 세우고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틈이 있더라고요. 저소득국가 여성들에게 돈을 주면 여성 인권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나 남동생들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걸 바꾸려면 시민의 마인드와 문화가 변해야 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제 생각이 너무 낙관적이었구나,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걸 느꼈어요.”

장민수 학생은 박사과정까지 마친 후 세계 보건 현장으로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소망한다. 장민수 학생은 ‘아산장학금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세상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



앞으로의 학업 계획을 설명하는 장민수 학생.